

# “금융시스템 대체로 안정... 중동·취약부문·집값 경계”

## 한은,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

FSI 주의단계, 취약성은 평균 상회 중동 여파에 환율 급등·증시 조정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 12%대 지속 가계·기업 대출 증가세는 둔화 시장불안 땐 정부와 공조 대응

한국은행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도 국내 금융시스템이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중동발 외환·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취약 부문 부실, 수도권 주택가격발 금융불균형 누증 가능성은 여전히 경계해야 할 위험요인으로 지목했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금융시스템의 단기 불안 정도를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는 지난 2월 15.3으로 주의단계에 머물렀다. 중장기 취약성 정도를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지난해 4분기 말 48.1로 장기평균 45.4를 웃돌았다.

장정수 부총재보는 이날 설명회에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며 “중동 상황 발생 이후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이번 보고서에서 잠재 리스크를 네 갈래로 제시했다.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국 통화정책 기대 변화, AI 버블 경계감 등에 따른 자산가격 조정과 머니부브 ▲외환·금융시장 변동성 ▲성장 양극화와 자금조달 애로가 겹쳐 취약부문 부실이 확대 등이다. 여기에 기업부문 간 자금조달 여건 차별화와 수도권 집값 상승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증 위험도 함께 거론했다.

신용시장에서는 가계와 기업 모두 증가세가 둔화됐다. 2025년 4분기 가계신



(왼쪽부터) 유재현 국제기획부장, 이정연 금융안정기획부장, 장정수 부총재보, 임광규 금융안정국장, 김정호 안정총괄팀장이 2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안정 상황(2026년 3월)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행

용은 주택관련 대출 증가폭 축소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증가율이 0.7%로 낮아졌다. 소득 대비 가계신용 비율도 140.9%에서 139.8%로 하락했다. 기업대출은 같은 기간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하는데 그쳐 낮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임광규 금융안정국장은 “가계 신용은 증가세 둔화 흐름이 지속되면서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기업 신용도 비교적 낮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취약부문 리스크는 이번 보고서의 핵심 경계축으로 제시됐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025년 말 1.86%로 장기 평균을 웃도는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취약 자영업자 대출 규모도 114조 6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1조1000억원 늘었다.

김정호 안정총괄팀장은 “취약차주 비중 재상승과 관련해 신용회복 지원 효과가 일회성에 그쳤다고 보긴 어렵다”며 “향후 금리나 시장금리 여건에 따라 연체율이 다시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산시장과 대외부문에선 숫자로도 변동성 확대가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 중반에서 등락하다가 중동상황 발생 이후 상당폭 상승했다. 외국인 국내 증권투자자금도 2월

이후 6개월 만에 순유출로 전환됐다.

임 국장은 “주기는 사상 최고치를 잇따라 경신하다가 중동 상황 발생 이후 큰 폭 조정되는 등 변동성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라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 역시 안심하기 이르다는 분석이다. 수도권 주택매매가격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여전히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는 2월 들어

약화됐다. 다만 미분양 주택은 6만7000호, 준공 후 미분양은 3만호로 장기평균을 웃도는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장 부총재보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약화되었으나 부동산시장의 추세적인 안정 여부를 계속 지켜봐야 한다”며 정책 공조를 통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한은은 중동 리스크 장기화가 금융안정 상황의 최대 변수라고 보고 있

다. 이수형 금융통화위원은 별도 메시지에서 현재 우리 경제가 “물가의 상방위험과 성장의 하방위험이 모두 높아진 복합적인 도전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취약부문 자금조달 애로와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번지지 않도록 선제적 모니터링과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유동성 대응능력 강화”를 주문했다.

한은은 앞으로 외환·금융시장 움직임과 중동상황 전개 및 파급영향을 신중히 살피는 한편, 시장불안이 발생할 경우 적기에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실시하는 등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임 국장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장 부총재보도 “정책 공조를 통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 취약 자영업자 대출부실 우려 “선별지원·구조조정 병행해야”

자영업자 대출 1092조대로 늘어 비은행권 연체율 3%대 후반 기록 취약 차주 대출잔액은 오히려 증가

한국은행이 취약 자영업자 부실을 이번 금융안정 상황의 핵심 리스크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최근 금리인하와 정부 지원정책 등의 영향으로 자영업자 연체율이 소폭 낮아졌으나,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이 여전히 12%대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선별 지원과 구조조정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86%로 장기평균(2012~2025년) 1.58%를 웃도는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특히 비은행권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3.64%,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은 12.14%에 달했다. 원리금을 연체한 자영업자 차주는 14만8000명으로 전체 자영업자 차주의 4.6%였다. 이들이 보유

한 대출은 33조5000억원으로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3.1%를 차지했다.

대출 규모 자체도 여전히 크다. 자영업자 대출은 2025년 말 기준 1092조 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조1000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취약 자영업자 차주는 40만4000명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12.6%였다. 이들의 대출 규모는 114조 6000억원으로 전년말 113조5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 증가했다. 취약 차주 수는 줄었지만 대출잔액은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

한은은 최근 흐름을 단순 악화로만 보지 않았다. 보고서는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그간의 금리인하 영향과 정부 지원정책, 서비스업 업황 회복 등으로 연체율도 소폭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주요국 대비 자영업자 비중이 여전히 높고, 연체율도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봤다.

/김주형 기자



metro

KB금융그룹 | **국민의 힘**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Tuesday      Wednesday      Thursday

2      3      4

9      11

16      18

23      24      25

**KB손해보험이 지키는  
1년 365일 든든한 일상!**

**일상을 지키는 힘  
KB손해보험**

**KB손해보험**